

삼성 임직원 15년째 '쪽방 밀집촌' 온정 나누기

5700여 가구 찾아 생필품 전달

삼성은 5일 연말을 맞아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주요 도시의 쪽방 밀집촌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임직원 270여명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5개 도시의 쪽방촌 10곳에 있는 5700여 가구를 찾았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쌀, 장조림 캔, 곰탕 파우치 등 장기 보관이 가능한 부식류로 구성된 생필품을 전달했다.

삼성의 연말 쪽방 봉사활동은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매년 약 3억 원 규모로 지원해 올해까지 총 50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9만50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은 "앞으로



삼성 임직원들이 쪽방 밀집촌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계열사 대표이사과 임직원들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등고자비' 수소차 확보 정책

(登高自卑)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불경(佛經)을 보면 어느 부자가 다른 사람이 지은 삼층 정자를 보고 목수를 불러 똑같이 정자를 짓게 했는데 일층과 이층은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삼층만 지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기초부터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부터 찾는다는 이야기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정부의 수소자동차 확보 정책을 보면 '등고자비(登高自卑)'가 떠오른다. 정부는 수소차 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의 숫자는 현재 터무니없이 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책정한 2019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에 따르면 1237억원으로 올해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 수소차 한 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모두 5500대의 수소차를 소비자들이 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년간 보급된 수소차가 570대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

급된 모든 수소차보다 9배 이상 더 많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경기도가 3곳, 서울 2곳, 부산 1곳으로 대전과 세종시, 충북, 전북, 전남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내년에 30곳의 충전소를 더 짓기로 결정했지만 완공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소충전소의 국산화 정도다. 설치비용을 내리는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의 국산화율은 40% 정도로 수소충전소의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가 50%를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1기 설치비용은 30억원이다.

관련 민원이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수소차를 8대 선도산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사업적 기반은 너무나 약해 보인다.

속전속결이 능사는 아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걸음을 경시하고 속성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ywj964@metroseoul.co.kr

애경산업 보육원 아동과 '힐링&여행 문화체험'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5~6일 양일간 보육원 아동을 위한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애경산업은 '힐링 & 여행 문화체험'에 필요한 교통, 숙식 등의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충남 부여 소재 삼신보육원

의 아동 40여 명은 1박 2일 동안 레고 체험과 영화관람 및 광명동굴,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을 견학한다.

애경산업의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은 사랑(愛)과 존경(敬)이라는 기업이념과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은 지난 9월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2박3일 독도탐방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전남 장성 소재의 상록원 아동을 위한 '1박 2일 서울근교 힐링캠프' 등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1박 2일간 보육원 아동을 위한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관계자는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소외 이웃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0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6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걸잡을 수 없이 커진다. 72년생 말따위의 거래를 잘 살펴야 한다. 84년생 동분서주(東奔西走)하나 결과는 오후에 좋을 것.
- 소** 4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61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이다. 73년생 무더위다가 가면 그늘 덕은 잊어버리니 마음을 접어라. 85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이다.
- 호랑이** 50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62년생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74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6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 토끼** 51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6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하라. 7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87년생 회로에 락을 함부로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 말** 5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량을 베풀자. 64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예상. 76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8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 뱀** 5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77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9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생각을 바르게.

- 말** 54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66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78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90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보면 큰 것을 놓친다.
- 양** 55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7년생 기회가 주어저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79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 원숭이** 56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8년생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외면한다. 80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9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 닭** 57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9년생 일이 지체되면 오늘 밤부터 잠자는 방향을 바꿔보라. 81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93년생 남에게 존상치는 내게로 돌아온다.
- 개** 5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70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한 하루이다. 8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94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돼지** 59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1년생 가뭄에 비오듯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해결. 83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뿔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95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멀리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8					9
	6			4		1		5
	4			6				3
		3	4					
			5			7	2	
		2		7	8			6
1	3		7		4			2
		4				3	1	7
		5						

					6	4	3	
					8			1
		4	2	5	1	7		
	3		8	6	9			1
	6				2			8
	8							4
		6					1	
8	5		3	1	4		7	9
	1							5

스도쿠 정답								
6	7	8	2	5	1	9	3	4
2	1	5	9	8	7	6	4	3
9	5	7	6	4	8	3	1	2
3	4	1	8	6	5	9	7	2
8	9	6	3	7	2	4	5	1
5	2	1	9	6	4	7	8	3
7	3	4	1	5	9	8	2	6
4	6	9	1	3	7	2	8	5

김상회의四季



작은 영웅들의 보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시대에도 영웅이 있었다. 나라들 사이에 침탈이 일상이던 시대에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영웅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에는 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 즉 의인들이 영웅이라 불린다. 최근에 홍콩의 영화배우인 주윤발이 거액의 기부로 칭송을 받았다. 알다시피 80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스타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과일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 400억을 대학교에 쾌척한 노부부가 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부부는 자기들의 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운세를 타고 나기 바란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윤발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일매일의 생활에 허덕이는 일반 사람들은 재물을 도외시할 수 없다. 재물을 쌓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는 그 마음에 더불어서 선한 마음도 함께 쌓자고 말하고 싶다. 현대의 영웅들처럼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작은 기부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석가모니도 보시를 항상 강조하셨고 무주상보시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다. 무주상보시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무주상보시가 어려우면 복을 바라고 보시를 해도 좋다. 보상을 바라도 좋은 것이 보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재물을 열심히 쌓으면서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보시를 해보라.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복이 쌓인다.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모두 큰 영웅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영웅은 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9호